

제주4·3평화문학상 소설부문, 전북 작가 김소윤 당선

소설 '정난주 마리아와 잊혀진 꽃들', 시 부문 '취우' 당선작 밝혀

전북 출신 소설가 김소윤(38)씨가 제6회 제주4·3평화문학상 소설부문에서 '정난주 마리아와 잊혀진 꽃들'이라는 작품으로 당선됐다.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제6회 제주4·3평화문학상 본심사위원회를 갖고 소설부문 '정난주 마리아와 잊혀진 꽃들'(김소윤, 1980년생, 전북 전주시 거주), 시 부문 '취우'(정찬일, 1964년생, 제주 서귀포시 거주)를 각각 당선작으로 뽑았다.

제주4·3평화재단은 4·3의 아픈 상처를 문학작품으로 승화시키고 평화와 인권·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시키려는 취지를 담아 '4·3의 진실,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발전'을 주제로 시와 소설 두 장르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 20일까지(제6회 제주4·3평화문학상) 작품을 공모했다.

시상금은 국내 최고액인 소설 7000만원, 시는 2000만원이다. 공모 결과 해외(미국, 캐나다, 호주) 및 국내 15개 지역에서 총 231명이 응모, 시 1685편(135명), 소설 101편(96명)이 접수됐다.

당선작 '정난주 마리아 - 잊혀진 꽃들'은 1801년, 조선조 후기 천주학 사건(황사영 백서)으로 인해 제주도로 유배되어 관노비로 살게 된 여자 정난주의 비극적 일생을 그린 소설이다.

소설 부문 심사위원들은 "제주도의 역사와 풍토, 서민과 노비들의 학대받는 아픈 삶이 배경인 이 소설은 제주도의 역사와 함께 영원히 기억돼야 하고 오늘 부활시켜야 하리라 생각한다"며 "조선이라는 봉건시대의 변방에 놓여 있는 제주의 차별성을 정난주라는 한 여인의 꺾인 삶과 연결시키는 작가의 진정성이 감동으로 다가왔다. 거기에 작가의 성실하고 개성 있는 문체도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소설 당선작가 김소윤은 1980년 전북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2010년 '전북도민일보' 신춘문예에서 단편소설 '물고기 우산'이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같은 해 '한겨레21' 순바다 문학상에 단편소설 '벌레'가, 2012년 제1회 자음과 모음 '나는 작가다'에 장편소설 '코카르-골 시간의 문이 열립니다'가 당선됐다. 저서로 장편소설 '코카르-골 시간의 문이 열립니



다와 단편소설집 '밤의 나라'가 있다. 제6회 제주4·3평화문학상 시상식은 3월중 개최될 예정이며 당선 작품은 공식 출판을 통해 독자들에게 선보인다. /채규남 기자

군산대 하윤도 교수, 마르퀴즈 세계인명사전 등재

군산대학교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하윤도 교수(39)가 그간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8년판에 등재되었다.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마르퀴즈 후즈후 인 더 월드는 미국 인명정보기관(ABI), 영국 국제인명센터(IBC)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3대 인명사전 중 하나로 매년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물을 선정해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하고 있으며 엄격한 선정기준으로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하 교수는 지난 2016년에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되었고, 같은 해 영국 국제인명센터(IBC)의 '21세기의 우수 지식인 2000인(2000 Outstanding Intellectual of the 21st century)'에도 등재된 바 있다. 또한 2017년에는 국제인명센터(IBC) 선정 'Top 100 Engineers 2017' 및 'Great Men and Women of Science'에 잇달아 등재되었다.

하윤도 교수는 2008년 서울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 취득 후 2008년~2011년 미국 네브라스카-링컨 대학 박사 후 연구원을 거쳐 2011년부터 군산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2015년에는 군산대학교 특별승진 규정에 따라 부교수로 조기승진하였고, 2016~2017년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에 교환교수로 파견되었다. 또한 학술연구 분야 업적을 인정받아 2017학년도 군산대학교 '올해의 공대인'으로 선정되었다. /군산=김판근 기자

새마을지도자전북도협의회 이·취임식 행사

새마을지도자전북도협의회(회장 방혜영)는 6일 11시부터 이종본에서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전임 구자강회장에 대한 도지사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 시군 협의회장 공로패 전달 및 이, 취임식 순으로 진행했다.

방회장은 "연단나눔 행사 및 해외 협력사업 등 새마을봉사 현장에 중심을 두고 회원 상호간에 서로 믿고 존경하는 분위기 조성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에게 사랑받는 봉사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청음면-통영시 무전동 자율방범대, 자매결연 협약식

임실군 청음면 자율방범대는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자율방범대와 자매결연 협약식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청음면 자율방범대원과 통영시무전동 자율방범대원 70여명은 청음면 회의실에서 자매결연 협약식을 맺고, 상호교류를 통한 지역안전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통해 방범활동과 자원봉사 분야에서의 상호 교류 및 정보공유를 활발히 전개하고,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돈독히 맺어갈 것을 협약했다.

청음면 자율방범대 전원석 대장은 "방범대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종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무주군 이종환 부군수, 숙박시설 방문 안전점검 실시

무주군 이종환 부군수를 비롯한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안전재난과 등 관련 공무원들은 6일 관내 숙박시설을 비롯한 문화재 시설 등 현장을 방문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화재안전과 건축물안전, 공중위생시설 준수사항 등까지 폭넓게 살폈다.

군은 내달 13일까지 6개 분야 550개소를 대상으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으로, 생활 속 위험요소들을 찾아 해결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검사를 진행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종환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점검반(3개 반 21명)을 꾸린 무주군은 지난달까지 지역 내 의료시설 및 요양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완료했으며 터미널 등 대중이용시설과 해빙기 위험시설 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우정청, 'Best 미소천사' 군산경안동우체국 고성속 주무관 선정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Best 미소천사'에 군산경안동우체국 고성속 주무관을 선정하고, 6일 찾아가는 시상식을 통해 표창패와 인증배지를 수여했다.



'Best 미소천사'는 전북지역 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의 행복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고객감동을 적극 실천하는 직원을 선발하여 격려하는 제도이다.

첫 번째 'Best 미소천사'로 선정된 군산경안동우체국 고성속 주무관은 참가 일선에 근무하면서 밝은 미소의 친절한 우체국 직원으로 통하며 고객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업무처리로 정평이 나왔다.

이 날 찾아가는 시상식 후 일선 청구직원의 애로사항 파악 및 공감과 소통경영 실현을 위한 청구근무 일일체험을 한 김성철 청장은 "앞으로도 우체국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고객감동과 직원행복을 통해 아침에 출근하고 싶은 우체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군산시 개정면 송호마을, 무병 풍요 기원 화친의 시간 보내

군산시 개정면 송호마을(이장 이정기) 경로당에서는 최근 정월대보름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마을 주민 및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오곡밥을 나누고, 부럼깨기, 윷놀이 등 전통놀이를 즐기며 올 한해 무병 풍요를 기원하는 화친의 시간을 보냈다.

이집노 송호마을 경로당회장은 "군산시의 마을에서 지원해주는 덕분에 경로당에서 마을주민들과 경로당 회원들이 매년 전통을 계승해 나가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개정면 송호마을 부녀회원들은 30여명의 경로회원 어르신들에게 매일 점심식사를 대접해 경로효친을 몸소 실천하고 있어 지역사회와의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8년 11월 25일 (통행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832-3386	고창지사 563-6989
010-9845-4113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832-0955	정읍지사 538-338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8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호지사 010-8645-9335	익산지사 8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사람이 도시의 품격이 전주